

>>>이순자 교수의 『이삭줍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순리와 삶의 질



이순자 교수*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또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값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하고 있는 본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히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적 편리나 정신적, 감성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불로초의 꿈에 대한 집착은 의학과 약학, 기타 생명과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사실상 놀라울 정도의 평균수명 연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집착은 지칠 줄 모르

고 이어지고 있다.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체할 불멸의 정신세계, 예술 세계를 추구하여 왔다.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 육신을 도구로 하여 영원불멸의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는 종교적 노력, 순간 같이 짧은 인생에서 남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자취를 남기려는 예술인이나, 학자들의 불꽃같이 치열한 삶의 결과가 오늘날의 인류문명을 만들어 냈고 현재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류문명이란 생명유한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인간의 도전과 타협의 선물인 셈이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과정의 가장 합당한

* 이화여고,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 졸업,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도서관학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박사, 미국 스펀포드대학교 도서관 사서, 국제 경제연구원 자료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장 역임, 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soonja1210kr@yahoo.co.kr

진행이 바로 생로병사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살면서 우선 종족보존을 위한 후손을 생산한다.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며 그 댓가로 물질적인 요구의 충족을 누리면서 살다가 생체적인 노년에 이른다.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노화과정을 향한 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점차 약해진 노구는 자연스럽게 병들어 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는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자라 보지도, 늙어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더구나 병도 나보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인생, 나름대로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후손도 없이 병으로 죽는 인생은 누가 봐도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노년기가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짧게 살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질이 높고 내용이 충실한 삶을 살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노화과정을 밟아서 병도 나보고 죽는 일련의 과정, 즉 생명체가 거치는 순리의 전 과정을 빼먹지 않고 충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나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온전한 것, 충만한 것에서는 항상 감동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질 높은 삶' (Well-being)에 대한 열풍이 시끄럽게 상흔을 타고 있다. 이것도 따지

고 보면 유한한 생명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인간의 조정력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시켜 보려는 도전이며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유형, 무형의 사물을 평가 할 때 일정한 양(Quantity)이 우선 있지 않고는 질(Quality)을 논할 수 없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에서도 우선 평균수명을 이 만큼 늘린 것이 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탕을 이룩한 것이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나 양이 많아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고 옷도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갈아 입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편안하고 청결해야 행복하다. 또 남과 어울리고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살 맛이 난다. 그러나 물질적 사회적 만족은 끝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포만상태는 삶의 질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못한다.

고차원적인 의미의 '질 높은 삶'이란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충족된 물질적, 사회적 기반 위에서 개인 각자가 일과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을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지속적인 향상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자신이 남과 차별화 된다고 믿는 자아를 실현하는 이 작업은 싫증이 나거나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엄격한 자기 훈련이 없는 이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물리적, 생체적

한계의 틀 안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질 높은 삶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궁할 수 있는 소박한 고품격 삶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짚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우선 모든 생명이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다면 좋겠다. 가능하면 차가운 시험관 속이 아닌 따뜻한 엄마의 몸속에서 잉태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넘치는 사랑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절제가 있는 소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심신이 건강한 아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 독립심이 강한 아이, 인정이 많아서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은 물질은 넘치고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넘치는 사랑과 절제된 물질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생을 지속하는 기초 건강을 지니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취미와 재능에 일치하는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의 즐거움과 삶의 즐거움이 한 길에 있을 테니까. 한 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 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동할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경험을 꼭 하면 좋겠다. 신이 부여한 인체의 모든 기관이 그 기능을 다 해보지도 못한다면 아까운 일이 아닌가.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일하며 살면 좋겠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자신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기간, 낳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적어도 60년은 살면 좋겠다. 원래 회갑의 의미

가 자신의 일도, 자식 키우는 일도 일단락은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 정도는 살아 봐야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인생의 요모조모를 깨닫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년기에 쇠약해지고 병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약해져 보아야 겹쳐져서 내면의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육신의 고통도 살아 있음의 징표이다. 몸에 좋다는 것은 이제 그만 찾아 먹고 그 대신 영혼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선상에 있음을 받아드리고 평화롭고 가벼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필요 없는 자원낭비나 과도한 비용 지출로 주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안하면 좋겠다. 특히 한 순간이라도 기계나 약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고통은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줌의 깨끗한 재로 대지의 흙 속에 섞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잠시라도 아름답게 머물면 정말 좋겠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 곧 가장 질이 높은 삶일진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